

“함평나비대축제 성공기원” 나비 2025마리 훨훨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며 하늘 높이 나비를 올려보냈다.

함평군은 21일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의 성공 개최 나비 날리기 행사”가 이날 오후 함평엑스포공원 수생식물관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 모정환 전남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등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제27회 나비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며 함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키운 호랑나비와 배추흰나비 등 2,025마리를 하늘로 날려 보냈다.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는 ‘나비, 황금

박쥐를 만나다’라는 주제와 ‘함박이와 함께하는 함평 나비 세상’이라는 부제로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12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나비대축제에서는 다채로운 봄꽃과 함께 야외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를 만나볼 수 있으며, 소원을 빌며 직접 나비를 날려 보내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다.

또한, 황금박쥐가 있는 함평주역공작소와 다육식물관, 나비곤충생태관, 자연생태관, 아열대농업관, 수생식물관, 함평군립미술관, VR체험관 등이 있으며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다.

문화예술공연으로는 나비판타지아 퍼레이드쇼, 브레드 이발소 싱어롱 쇼, 지역 문화예술단체공연, 전국 버스킹 경연대회,



나비 댄스 경연대회 등 어린이들과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를 찾아주시는 관광객분들에게 특

별하고 환상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공작자들과 군민 모두 최선을 다해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관광객과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나주시가 청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사회 초년 경제적 자립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18~45세 청년 취업자를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는 청년이 돌아오는 나주를 목표로 추진하는 민선 9기 청년 패키지 정책 중 하나다.

관내 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주택 유형, 소득 기준에 따라

나주시, 청년 취업자 전월세 주거비 최대 240만원 지원

18~45세 청년 노동자·사업자 1년간 매월 20만원씩 지급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20만원(최대 240만원)을 주거비로 지원한다.

주거비 신청 조건은 18~45세 청년 중 ‘나주 관내(도내) 업체(회사) 근로자 또는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대출금 5천만원 이상 전세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 해당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거급여 대상자이거나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 소유, LH임대주택 공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 관련 금융지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지원 정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총 85명(전남형 35명, 나주형 50명)으로 전년 대비 나주시 자체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신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한 구비서류를 작성·첨부해 3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자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 문의는 나주시 기획예산실(평년월리팀) 또는 각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나주/이명열 기자

강진군 밀키트, 품질 혁신으로 지역 음식문화 도약

제품 개선·포장 개선 사업으로 강진 대표 음식 경쟁력 강화

강진군이 지역 대표 음식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밀키트 제품의 맛과 포장법 등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강진의 맛을 전국에 알리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총 6종의 기존 제품(호준탕, 돼지불고기, 주어탕, 짬뽕어탕 2, 장어볶음)과 3종의 신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대표 음식을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 재탄생시키고 지속가능한 품질 유지로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맛벌이 부를 키우고,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밀키트 시장 성장속도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장법과 보관법의 개선을 통해 제품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특히, 먹음직스러운 포장 기술과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통해 제품의 담음새를 개선하며, 진공 포장 기술로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한다.

각 재료의 특성에 맞는 보관 방안을 제시해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맛의 표준화를 위해 외식창업연구소와 연계해 조리법과 레시피를 개선한다. 분기별로 맛 점검을 실시해 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변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항상 최상의 맛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규 밀키트 제품은 디자인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최적의 포장 디자인을 선보인다. 모든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검사를 실시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건강과 맛을 동시에 고려한 강진군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단순한 제품 개선을 넘어 강진의 음식 문화를 전국에 알리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강진의 음식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담양 고서면,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 개최

담양군 고서면은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20일 고서면 고읍리 779-22번지 일원에서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을 주민, 산불전화대원, 공무원 등 21여 명이 참석해 아름답고 푸르른 고서면을 만들기 위해 홍가시, 사철나무 총 375주를 심었다.

이번 나무 심기 행사를 통해 고읍리 주변 약 100m 구간의 꽃길이 완성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지나가며 즐길 수 있는 경관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구미형 고서면장은 “식목 행사를 통해 나무 심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들이 직접 가꾸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곡성군, 제80회 식목일 기념 편백심기 행사 추진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곡성읍 죽동리 임야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나무심기 행사에서는 곡성군청, 곡성교육지원청, 곡성고등학교, 곡성군산림조합, 곡성군인업후계자협회 회원 등 학생과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해 1ha 면적에 편백나무 1,500그루를 심었다.

편백나무 식재 대상지는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여 감염목을 제거한 공간으로 지역주민과 학생까지 직접 참여해 나무를 심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이해는 물론 기후 변화에 대응한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가꾸는 다짐의 장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장흥군-고성군,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맞손'

전남 장흥군과 강원도 고성군이 고향사랑기부금을 교차 기부하며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0월 ‘정남진 장흥 통일열차 프로젝트’를 통해 장흥군민 350명이 고성군을 방문하면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교류 확대를 약속했다.

이 같은 우호협력을 첫 걸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기부를 진행했다.

장흥군은 이번 교차기부를 시작으로 더 많은 협력과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며 상호 간의 유대감을 높여 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장흥군 제공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